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5. Vol. 16, No. 3, 01~16.
https://doi.org/10.22987/jifso.2025.16.3.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저소득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장벽의 유형화

최 상 미* **이 상 아****

동국대학교(서울) **서울시복지재단**

본 연구는 저소득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층적인 고용 장벽을 유형화하고, 발견된 고용 장벽 유형을 바탕으로 향후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3차 패널 중 중위소득 50% 이하 1,56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취약형'은 고용 장벽 인지 정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으나 인적자본을 가장 높은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는 유형이 38.6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적장벽취약형'은 인적자본, 구직 및 취업 관련 어려움, 돌봄부담 등 구조적 장벽 요소를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가장 많은 45.52%가 이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구조적장벽 복합취약형'은 구조적 장벽과 함께 통제력 결여, 관계상의 어려움, 건강 문제 등 개인적 장벽도 높은 수준으로 장벽으로 인지하는 집단 유형으로 전체의 15.86%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립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 강화, 노동시장 개선 및 접근성 완화, 돌봄부담 완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등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저소득 청년, 고용 장벽, 잠재프로파일 분석, 구조적 장벽, 개인적 장벽

* 주저자: 최상미/동국대학교(서울)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Tel: 02-2260-3659/E-mail: schoi@dongguk.edu
** 교신저자: 이상아/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Tel: 02-6353-0434/E-mail: lisalee@welfare.seoul.kr

Ⅰ. 서론

저소득 청년들은 최근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취약적 특성이 더해져 보다 복합적이고 가중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의 결핍을 넘어 교육,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로 이어진다. 특히 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년들은 경제적 곤란과 더불어 학업 중단, 불안정한 주거환경,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청년 당사자의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돌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등 가족의 어려움까지 짊어진다(최상미·김한성·유효은, 2019; 최상미, 2024). 현재의 노동 시장에서 저소득 청년이 경험하는 다층적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의 핵심 과업인 경제적 자립의 과정에서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괜찮은 일자리를 성취하는 것에 기인하는데, 청년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특수고용직 등으로 이분화, 양극화된 노동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이거나 진입 준비자로서 원하는 성취를 하는 데 장벽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자원이 한정된 저소득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며(최상미·고가영, 2019),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진 한국 노동시장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이승윤 외, 2017). 남재욱·김영민·한기명(2018)는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들은 교육 기회의 제한, 직업훈련 접근성 부족,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핍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금선(2015) 또한 소득 계층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청년일수록 취업 이행 기간이 더 길고 임금수준도 낮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전통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복지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은 청년의 구직기간 연장, 고실업에 이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는 다시 좌절, 불안, 우울, 고립 등 심리·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2007년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로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표현되며 사회적 이슈화 되었으나,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세계금융위기,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전환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청년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2021년 제1차 '21~'25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3년 9월 발표되고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및 수당 지원, 고립은둔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례관리 및 수당 인상, 청년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그러나 저소득 청년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행 서비스 체계가 분절적이고 제한적이며(김지경 외, 2018),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또한 은둔·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특정 취약 특성을 가진 청년에게 집중되어 저소득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최상미, 2024).

최근 한국에서 청년들의 누적된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그냥 쉼' 청년의 증가이다. 니트청년, 구직단념 청년으로 표현되는 '그냥 쉼' 청년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직업훈련을 하지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으로 구직과 자립을 포기한 청년의 증가를 의미한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그냥 쉼' 청년은 2024년 7월 기준 44.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명 증가하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의 청년들이 점차 저소득 불안정 일자리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 찾는 것도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노동 시장에서 일하기를 중단, 포기하는 청년들의 실업기간 장기화와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이어지며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부담이 된다. 본 연구는 고용 장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활에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의 발견(Hong et al., 2018; Glennie et al., 2024; 최상미·이의빈, 2024)에 주목하고, 청년 세대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가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 유형화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청년층이 경험하는 고용장벽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장벽과 개인적 장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차원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하는 고용장벽을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직면한 제약의 세부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용장벽

고용장벽은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유지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제약으로, 인적자본·건강·동기 등 개인 특성과 돌봄·주거·재정 등 개인 상황, 그리고 채용수요·차별·정보접근·제도 규칙 등 외부·구조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 구직·근로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과 과정으로 개념화되어 왔다(Hong, Polanin et al., 2014, 최상미, 2019). 고용장벽 관련 문헌들은 대체로 자립과 관련하여 자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고용 장벽에 대한 인지와 극복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Hong, 2013; 최상미, 2020), 특정 집단이 인지하는 고용 장벽은 무엇이며 집단별로 어떤 유형의 장벽을 높게 인지하는지(Danziger et al., 2000; Blumenberg, 2002; Hong et al., 2014; 최상미·고가영, 2019; 최상미, 2019)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Hong (2013)은 고용 장벽에 대한 인지가 경제적 자립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해 나가는 경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고용 장벽에 대한 인지로부터 희망으로의 전환 과정을 정서적 자활로 명명하며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후속 연구(Hong et al., 2022)에서는 개인이 인지하는 장벽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구조와 지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련의 연구들 Hong, Polanin, Key, & Choi, 2014; 최상미·고가영, 2019; 최상미, 2019)은 대체로 자립이 필요하거나 자립이 어려운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로와 고용을 가로막는 장벽 요인을 탐구하고, 건강, 정신 건강, 인적 자본, 가족 돌봄, 노동시장 배제, 일자리 부족, 정보 부족, 개인적 균형 등을 고용 관련 장벽으로 제안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Danziger et al.(2000)은 복지수급자들이 직면하는 고용 장벽을 개인적, 인적자본, 가족 관련, 그리고 직업 관련 장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직무경험, 건강상태와 같은 인적자본 요인이 복지 수급자가 노동 시장에서 가지는 주요한 장벽임을 발견하였다. Blumenberg(2002)는 복지 수급자들의 고용 장벽 중 교통 접근성의 문제에 집중하여 물리적·공간적 측면에서 낮은 접근성(spatial mismatch)이 이들의 고용 성과에 부정적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Hong et al.(2014)는 미국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카고 지역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 인적자본의 부족, 건강 문제, 노동시장배제, 아이 돌봄, 통제력과 등의 장벽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상미·고가영(2019)이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구직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인적자본 결여, 일상생활 통제력 부족, 법·재정적 문제, 돌봄 부담, 정보의 부족, 관계상의 문제와 어려움, 신체적·정신 건강 어려움 등을 경험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최상미(2019)는 생계급여 수급 빈곤 청년의 고용 장벽으로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가족 관련 장벽, 건강 관련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Hong et al.(2014)는 고용 장벽을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인적 자본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구조적 차원의 장벽으로, 건강, 아동 돌봄, 소프트 스킬 장벽을 개인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가족 돌봄 요인은 사회의 돌봄 지원 부재라는 측면에서 구조적 장벽으로도 구분되기도 하였다(Hong et al., 2016). 이에 대해 Hong et al.(2022)은 고용 장벽을 구조적 장벽과 개인적 장벽으로 이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구조적 장벽은 능력과 의지 등 개인적 요소와 관련 없이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중화된 노동 시장, 불안정 일자리, 지역적 제약, 아동 돌봄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신체적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 관계 및 소통의 어려움 등은 개인적 장벽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또한 제도적·실천적 대안 모색을 위해 고용 장벽을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이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아래 <표 1>에 제시한 Hong et al.(2022)의 고용 장벽 유형화 접근을 근거하고자 한다.

<표 1> 고용 장벽 유형 구분

구분	주요 장벽 유형	세부 내용
구조적 장벽	이중 노동시장 구조	1차(안정적 고임금) vs. 2차(불안정 저임금) 노동시장
	노동 불안정화	단기 계약, 파견, 비정규직 등 노동의 불안정화
	가족 임금 스트레스	탈복지가 어려운 정도의 낮은 임금;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장벽, 보육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부재로 복지로 돌아가는 요인
	지역 기반 기회 격차	도시 내 지역별 기회 구조의 차이, 소수인종 밀집 지역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아동 돌봄 지원 부족	아동 돌봄의 부재가 고용 참여를 저해하며 단일부모·여성의 고용을 특히 제한함
	인적 자본 제약	낮은 교육 수준, 직업훈련 기회 부족, 기술 부족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개인적 장벽	신체 건강 문제	만성질환, 신체적 제한 등
	정신 건강 및 약물 의존	우울증, 불안, PTSD, 약물 남용 등
	동기 부족 및 낮은 자기효능감	무기력, 낮은 자존감, 실패 경험 등
	소프트 스킬 부족	시간관리,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 등의 부족
	사회적 고립	지지망 부족, 정보 접근 어려움, 네트워크 부족 등
	정서적/문화적 요소	수치심, 무기력, 현재 지향성, 충동성 등 '빈곤 문화'

출처: Hong 외(2022).

2. 청년과 고용장벽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모든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성취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노동 시장에서 저학

력·저숙련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는 더욱 어려우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 장벽으로 내면화된다. 1990년대 후반 IMF이래 시작된 노동 시장에서의 청년의 어려움은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 위기와 최근 코로나와 AI, 로봇화 등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완화될 틈 없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일련의 학자들(변금선 2015; 이승윤 외, 2017; 남재욱, 2018; 최상미, 2019)은 저소득·빈곤 청년이 실제로 경제적 자립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며, 신체건강관리, 심리정서, 교육훈련,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상미(2019)는 자활사업 참여 청년 대상 연구를 통해 저소득 저기술 구직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가족 관련 장벽, 건강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회 불평등, 저임금 및 고용불안, 주거불안 등과 같이 빈곤의 위험을 경험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제한된 구직기회와 반복된 좌절, 정서적·육체적 소진 등이 결합되어 고용장벽의 원인이 되고 있다(안홍순, 2016; 이승윤·이상아, 2018; 조규준, 2024).

한편,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장벽이 개인의 취업 기회에 대한 접근·진입·유지 전 과정에서 작동하는 다차원적 제약 요인임을 보여주며, 이들이 직면한 구체적 어려움을 규명함으로써 어떤 영역에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Bell & Blanchflower(2011)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이 직면한 주요 고용장벽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기회 축소, 비정규·단기직 중심의 노동시장 진입, 교육·훈련과 고용 간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적자본 축적 기회가 제한되고, 이후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장기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O'Higgins (2017)는 청년 고용장벽을 구조적 요인(노동수요 부족, 경기 변동성), 제도적 요인(노동시장 규제, 고용보호법), 개인적 요인(경험·기술 부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거시·제도적 논의와 더불어, 실제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장벽의 양상을 규명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최상미(2019)는 수급 가구 근로 청년 11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삶에 대한 통제력 결여, 가족 돌봄 부담, 건강 문제 등 4개 차원 16개 문항의 청년 고용장벽 척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유지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구조적 제약과 개인적 제약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최상미·이의빈(2024)은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 인식이 경제적 자립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실증 분석하며,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벽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 완화가 단순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넘어, 생활 인프라 개선, 심리·정서적 지원, 차별 해소 등 다면적 정책 개입과 결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상미(2019)가 제안한 고용장벽의 개념인 구직 및 근로 과정에서 인지되는, 구직·근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아, 저소득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장벽의 잠재적 이질성을 경험적·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고용장벽을 (1) 제도·노동시장 구조, 차별·배제, 정보·서비스 접근성 등 구조적 장벽과 (2) 인적자본·건강·돌봄·시간·동기·심리사회적 요인 등 개인적 장벽으로 개념 설정한 뒤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 유형을 도출한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장벽은 구조적 장벽과 개인적 장벽의 요소 속에서 어떠한 결합 패턴을 이루며, 그 결과 어떤 유형으로, 잠재적으로 분화되는가?" 더 나아가, 유형별로 상이한 정책·실

천적 지원 필요를 식별하고 저소득 청년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청년 대상 3차 패널 자료(최상미 외, 2024)를 이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청년 대상 패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참여 청년 대상 1차 패널 조사로 시작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고용, 경제적·재정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주거, 건강, 재무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저소득 청년 연구와 정책들에서의 빈곤 기준인 OECD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청년 상대적 빈곤 기준(김수정, 2020; 변금선·이혜림, 2022)에 근거해서 소득 50% 이하의 청년 1,56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청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2024년에 조사된 3차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을 받았다(DUIRB-2024-09-01).

<표 2>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성	603	38.6
	여성	961	61.4
가구주	가구주	992	63.4
	가구원	572	36.6
근로여부	근로 중	1,370	87.6
	근로 중 아님	194	12.4
상용근로자	상용	793	57.9
	그외	577	42.1
학력	초졸	2	0.1
	중졸	7	0.4
	고졸	412	26.3
	전문대졸	269	17.2
	4년제 졸	743	47.5
	대학원 이상	131	8.4
연령	평균	28.85(세)	
급여	평균	159.11(만원)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된 고용장벽 척도는 저소득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유지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다양한 제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선행연구(Hong et al., 2014; 최상미, 2019)를 토대로, 고용장벽을 구조적 장벽과 개인적 장벽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하여 총 6개 차원,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장벽이 아님(1점)”에서 “강한 장벽임(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장벽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 특성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된 고용장벽 척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인식하는 장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단일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 제약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저소득 청년의 경우, 동일한 소득 수준 내에서도 인적자본, 가족·사회관계, 건강, 돌봄, 구직환경 등에서 직면하는 제약의 양상과 심각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세부 차원별 분석이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구조적 장벽에는 인적자본 결여(5문항, α = .818),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장벽(3문항, α = .774), 돌봄 부담(2문항, α = .859)이 포함

된다. 인적자본 결여는 부진했던 학업 성적, 가족의 전반적인 재정적 어려움, 교육·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취업에 필요한 기술·지식 습득 기회 부족, 직업 관련 경력 부족 등을 측정한다. 구직·취업관련 어려움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어려움, 보수·근무환경 등 선호 조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부족, 반복된 취업 실패로 인한 도전 회피 경향을 포함한다. 돌봄 부담은 자녀 양육이나 부모 돌봄 등 가족 돌봄 책임으로 인한 시간·에너지 제약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개인적 장벽에는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5문항, α = .830), 가족관계상의 어려움(4문항, α = .916),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2문항, α = .808)이 포함된다.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는 충동구매·과도한 지출, 분노 조절의 어려움, 음주 조절 실패, 스마트폰·PC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게임 과몰입 등을 측정한다. 가족관계상의 어려움은 가족의 보호와 사랑 부족, 가족 간 불화 및 단절, 지지적 환경의 부재, 개인 욕구와 가족 기대 간 불일치를 포함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은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 스트레스·외상·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능력 및 구직활동 제약을 반영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값은 α = .850이며 구체적인 각 하위 차원 문항 및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청년의 인지된 고용 장벽 척도의 차원 및 문항

구분	고용장벽 차원	문항내용	신뢰도
구조적 장벽	인적자본 결여	• 부진했던 (이전의) 학업 성적 • 우리 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 교육,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교육 자원의 부족 • 직업 관련 경력 부족	.818
개인적 장벽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	• 내 적성을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 • 보수, 근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움 • 잇따른 취업 실패로 인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	.774
	돌봄 부담	• 아이 양육으로 인한 부담 • 부모 돌봄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	.859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	•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 •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 SNS,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 •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한 게임에의 지나친 몰입	.830
	가족관계상의 어려움	• 가족의 보호와 사랑 부족 • 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 •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환경의 부재 • 내가 원하는 것과 가족 기대 간의 불일치	.916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 • 스트레스, 외상,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	.808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이 경험하는 근로장벽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문항별로 개인에게 관찰된 응답 패턴에 기초하여 유형 집단을 밝히는 것이다(Williams. & Kibowski, 2016).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개인 중심 접근법으로써 유형화 연구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계층적 군집

분석과는 달리 연속형 변수의 문항에 따라 개인의 관찰된 응답 패턴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에 더 주목한다. 즉, 이 분석 방법은 문항의 개인들의 응답 패턴들을 통해서 드러난 차이들로 잠재집단 차이를 설명하고, 변수에 대한 특징적인 응답들은 집단을 대표하는 특징의 형태로 분석한다(Kelloway, 2014). 이러한 연구방법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저소득 청년의 고용장벽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저소득 청년의 장벽 결합양상에 근거한 맞춤 지원 설계로 직접 연결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장벽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도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합지표로 정보지수인 AIC(Akail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SABIC를 활용하였다. 이때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은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김진숙, 2024). 또한, 개별 관측 값들의 분류 정확도 평균인 엔트로피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0.8 이상일 때 분류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Muthén & Muthén, 2000). LMRT는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 검증방법으로 p값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위해서는 Mplus 8.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관계상의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건강 문제(r = .599, p < .01),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가족관계상의 어려움(r = .559, p < .01), 신체적·정신적건강 문제와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 (r = .589, p < .01) 간 상관계수가 높아, 개인의 가족관계·정서적 지지망 결핍과 건강상의 제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적자본 결여는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r = .347, p < .01)과,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는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r = .389, p < .01)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노동시장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과 자기조절 능력이 취업 기회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돌봄 부담은 다른 차원과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돌봄 부담은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표본 내 변산이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1.129와 1.264 이하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1,56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구조적 장벽	① 인적자본 결여	3.16	0.94	−0.31	−0.34
	②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	2.90	1.08	−0.06	−0.69
	③ 돌봄 부담	3.00	1.28	−0.11	−0.98
개인적 장벽	④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	2.46	1.01	0.49	−0.43
	⑤ 가족 관계상의 어려움	2.30	1.14	0.54	−0.62
	⑥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2.67	1.29	0.26	−1.0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1	0.347***	0.774**	0.330**	0.282**	0.258**
②		1	0.108	0.389**	0.495**	0.589***

	①	②	③	④	⑤	⑥
③			1	0.082*	0.129*	0.146*
④				1	0.559***	0.372**
⑤					1	0.599***
⑥						1

2. 저소득 청년 고용장벽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1) 잠재프로파일 개수 결정

저소득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장벽에 대한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잠재집단 수를 2~6개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지수(AIC, BIC, SABIC)와 모형비교검증(LMR LRT, BLRT), 분류의 질(Entropy, 사후소속확률)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프로파일 개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SABIC의 값이 모두 감소하였다. 정보지수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로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으로 감소폭이 작아지는 지점에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수 있다(Nylund-Gibson & Choi 2018). 분석 결과, 잠재집단 수가 2, 3개인 경우에만 Entropy 값이 0.8 이상이었으며, 모형비교검증에서 LMRT의 p값을 고려하였을 때 잠재집단 수가 3개인 경우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집단의 사례 수가 전체 표본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Jung & Wickrama, 2008), 이 조건은 모든 경우에서 만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간명성 및 해석 가능성, 통계적 지표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 집단으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화를 저소득 청년들이 인지하는 고용장벽의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로 결정하였다.

<표 5> 잠재프로파일 적합도 지수

구분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보지수	AIC	22,251.96	21,554.56	21,242.57	21,091.42	20,982.51
	BIC	22,353.71	21,693.79	21,419.29	21,305.62	21,234.19
	SABIC	22,293.35	21,611.19	21,314.46	21,178.55	21,084.88
분류의 질	Entropy	0.829	0.822	0.771	0.776	0.814
모형비교검증(p)	LMR-LRT	0.00	0.00	0.0118	0.3294	0.0022
	BLRT	0.00	0.00	0.00	0.00	0.00
분류율	집단 1	.50064	.38619	.37126	.25512	.19118
	집단 2	.49936	.45524	.24853	.22251	.17519
	집단 3		.15857	.13786	.32033	.31138
	집단 4			.24235	.06074	.13555
	집단 5				.1413	.12404
	집단 6					.06266

3개 잠재 프로파일로의 유형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소속 확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표의 대각행렬이 모두 0.9 이상으로 분류의 정확도가 충족되었다. Nagin(2009)에 따르면 대각행렬이 0.7 이상이면 분류의 정확도가 충족되었다고 본다.

<표 6> 잠재프로파일 개수가 3개일 때의 사후 소속확률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1에 속할 확률	0.941	0.059	0
집단 2에 속할 확률	0.053	0.902	0.045
집단 3에 속할 확률	0	0.09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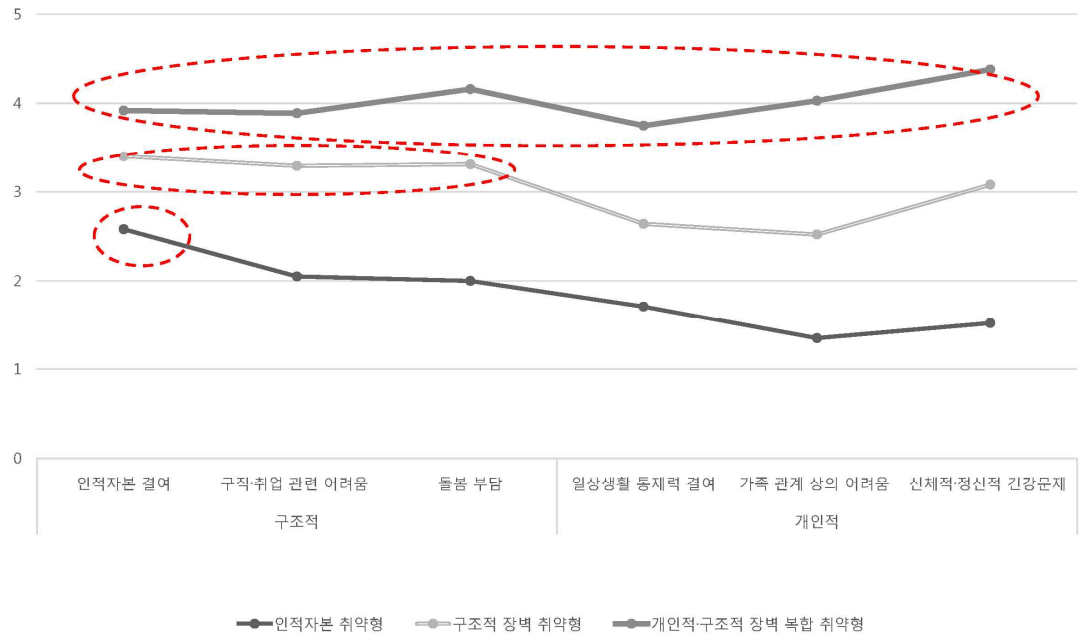
2) 저소득 청년 고용 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특징

3개로 분류된 저소득 청년의 인지된 고용 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집단은 인적자본 결여,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 가족

관계, 신체적 및 정신 건강, 구직 및 취업 관련 어려움, 돌봄 부담 등 모든 차원에 걸쳐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에 있어서 장벽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6개 고용 장벽 중 구조적 장벽에 속하는 인적자본 결여가 다른 장벽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인적자본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인적자본취약형' 집단에는 총 1,564명 중 604명(전체 38.61%)이 속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모든 차원에 걸쳐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의 장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으로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713명(45.52%)이 속하였다. 이 집단의 경우 인적자본 결여, 구직 및 취업 관련 어려움, 돌봄부담을 장벽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으로 인지하는 유형이 모두 구조적 장벽에 속하였다. 즉 구조적 장벽 요인 전반이 취약한 집단 유형으로 '구조적장벽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모든 측면에서 고용 장벽이 높은 집단으로 전체의 248명(15.86%)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의 경우 앞의 두 집단에서는 고용 장벽으로 인지했던 구조적 장벽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않았던 일상생활에서 통제력 결여, 가족과의 관계상의 어려움, 신체적 및 정신 건강 문제 등 개인적 차원의 장벽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구조적 장벽과 개인적 장벽을 포괄하여 모든 고용 장벽 요인을 높게 인지하는 복합적 취약집단으로 '구조적·개인적장벽 복합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집단별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 <표 7>,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용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

<표 7> 고용 장벽 유형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별 평균

고용 장벽 차원 구성		전체 집단	
	세부 차원	평균(점)	표준편차
구조적 장벽	인적자본 결여	3.16	0.94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	2.90	1.08
	돌봄 부담	3.00	1.28
개인적 장벽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	2.46	1.01
	가족 관계상의 어려움	2.30	1.14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2.67	1.29
	명(%)	1,564명(100%)	

고용 장벽 차원 구성		인적자본 취약형		구조적 장벽 취약형		개인적·구조적 장벽 복합 취약형	
	세부 차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구조적 장벽	인적자본 결여	2.58	0.63	3.40	0.63	3.92	0.63
	구직·취업 관련 어려움	2.05	0.65	3.29	0.65	3.89	0.65
	돌봄 부담	2.00	1.02	3.31	1.02	4.16	1.02
개인적 장벽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	1.71	0.52	2.64	0.52	3.75	0.52
	가족 관계상의 어려움	1.35	0.44	2.52	0.44	4.03	0.44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1.52	0.61	3.08	0.61	4.38	0.61
	비율% (N)	604명 (38.2%)		713명 (45.52%)		248명 (15.86%)	

Ⅴ. 결론

본 연구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청년 3차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위수준 50% 이하 저소득 청년들의 고용 장벽 특성을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유형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저소득 청년의 고용 장벽에 따라 '인적자본취약형(38.2%)', '구조적 장벽 취약형(45.52%)', '구조적·개인적장벽 복합취약형(15.86%)'의 세 가지 유형의 잠재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대체로 빈곤가구 출신인 수급·차상위 청년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인지하는 장벽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측면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집단인 '인적자본취약형(38.2%)'은 구직, 취업 등 고용과 관련하여 구조적 장벽 중 인적자본이 집중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이며, 과반에 가까운 두 번째 집단인 '구조적장벽 취약형(45.52%)'은 인적자본, 노동시장, 돌봄 등 구조적 장벽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집단이다. 즉 응답자의 대다수인 83%가량이 구조적 장벽 요인을 중심으로 고용 장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번째 집단인 '구조적·개인적 장벽 복합취약형(15.86%)' 또한 구조적 장벽을 높게 인지하는 동시에 추가로 개인적 장벽인 건강, 통제력, 가족 관계상의 어려움을 고용 관련 장벽으로 인지하는 복합적 집단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청년 모두 고용 장벽의 주요 요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약 15%에 해당하는 일부 청년들은 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개인적 요인도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는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로 보다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구조적 장벽 중 가장 많은 청년이 가장 높은 장벽으로 인지하는 요인은 인적자본 결여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청년들은 경제적 자원, 정보 자원, 인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등 자원의 부족으로 구조적으로 학력과 경력을 쌓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어려움을 가지며 이를 고용 관련하여 높은 장벽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저소득 청년들은 몰라서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교육 및 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

며, 이는 저소득 청년 고용 및 자립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 청년들은 대체로 구조적 장벽을 고용 관련 어려움으로 인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가장 취약한 '구조적·개인적장벽 복합취약형' 집단의 경우 구조적 장벽과 함께 개인적 장벽을 중요한 고용 장벽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개인적 장벽을 고용 관련 장벽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구조적 장벽 요인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집단일수록 구조적 장벽과 함께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 일상생활 통제력 결여, 가족 관계상의 어려움 등 높은 수준의 개인적 장벽을 인지하고 있었다. 개인적 장벽 중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가족 관계상의 어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돌봄 부담 또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관계, 돌봄 등에 있어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복합성(김문길 외, 2017; 김문길 외, 2020; 변금선·이혜림, 2022; 이순미, 2018), 청년 지원에 있어서 잠재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선행 연구들(정세정 외, 2021; 남궁현 외, 2024)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취창업 지원, 주거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자료, 2019; 최상미, 2020에서 재인용), 저소득 청년의 경우 추가로 경제적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창업 지원과 주거 지원에 집중된 현재의 청년 정책을 개인적 장벽 극복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자 욕구 기반으로 다차원적 맞춤형 지원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단순히 소득지원에서 나아가 저소득 청년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고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구조적·개인적 장벽이 높은 군에서는 단기 집중사례관리와 동기강화상담,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및 마음건강 바우처 연계, 원격·시간선택제 기반의 단계적 일경험 제공 등이 결합된 패키지가 요구된다. 반면 구조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적 장벽이 낮은 군에서는 현장형 일경험, 인센티브, 통근·이주 비용 지원 등 개입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인적 장벽이 두드러지는 군에서는 생활루틴 코칭과 학습기술 훈련, 저강도·성공경험 축적형 직무 배치, 또래 멘토링 등 심리·행동 활성화 패키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맞춤형 청년 고용 및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 뿐 아니라 전달체계 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저소득 청년의 고용 장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저소득 청년의 삶을 측정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고용 장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와 사례관리 체계는 전무하다. 저소득 청년들이 복지서비스를 경험하더라도,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복지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체계 안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라도 현행 시스템 안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개입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 사례를 보면 니트 위험성 지수를 개발하여, 노동시장 진입하기 전 학령기에 니트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인의 생애경로 이탈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김수혜, 2024). 이와 같이 저소득 청년의 하위차원의 고용 장벽 지수를 행정 시스템에 포함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여 측정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저소득 청년의 고용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정책이 운영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저소득 청년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경험도가 높지 않은 요인에는 당사자들의 정책요구와 정책 운영의 미스

매칭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빈곤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제공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저소득 청년의 고용 장벽을 유형화함으로써 저소득 청년 대상 지원에 대해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생 등 다른 청년 집단보다 간과되어 왔으나 높은 취약성을 가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벽이라는 인지적인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들 자립의 중요한 요소인 고용 장벽 극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심화되는 노동시장 격차가 청년의 학력·자격 강화와 진입 지연을 구조화하여 이행기 비용과 가족배경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다차원적 결핍(문화·건강·금융·주거 등)을 야기하므로, 청년정책은 고용을 넘어 다차원 통합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단면 시점에서의 패널 3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 개별적 고용장벽의 변화 양상과 인과적 효과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가 분석한 패널 데이터의 대상이 저소득 청년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청년, 그중에서도 패널 조사 참여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향후 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직접 조사, 이차 자료 활용, 종단 자료를 활용한 접근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 외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른 유형의 취약청년 대상 고용 장벽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시도가 이러한 후속 연구를 촉발하여 저소득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을 둘러싼 고용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의 고용과 자립 지원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수혜 (2024).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사례 및 청년 빈곤 실태 탐색: 영국, 독일, 스웨덴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6), 85-116.

김승연, 박민진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정책리포트, 1-21.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진숙 (202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정서전염성향의 유형 분류와 집단 예측요인 분석. 미래사회, 15(2), 128-144.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6-19.

남궁현, 석희정 (2024).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분석: 수급 여부에 따른 영역별 복지 욕구 차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6(1), 47-69.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2019). 2019년도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분석자료 발표자료.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실 보도자료.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안홍순 (2016).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정책, 43(3), 59-83.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서울: 레디앙.
이상아, 이승윤 (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18(2), 27-60.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이지혜, 황매향 (2017).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사례연구. 평생학습사회, 13(3), 57-83.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불리(disadvantage)의 경험과 취약 청년의 삶. 비판사회정책, 70, 293-334.
조규준 (2024).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왜 고립을 선택하였는가?. 노동리뷰, 71-84.
최상미 (2019).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 청년 고용 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31-56.
최상미 (2020). 저소득 청년의 자활 경로에 대한 탐구: 정서적 자활, 진로준비행동, 경제적 자활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1(1), 83-106.
최상미 (2024). 빈곤 청년이 가지는 취약성의 본질 탐구: 빈곤 청년의 집단 특성별 다차원적 빈곤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6(2), 99-126.
최상미, 고가영 (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 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 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50(2), 29-52.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최상미, 이의빈 (202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근로 빈곤 청년의 정서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 간의 관계 검증을 통한 자립 과정에 대한 탐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1, 27-52.
한진경, 강성민, 한창근 (2024). 저소득 청년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2), 669-682.

Bell, D. N., & Blanchflower, D. G.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Blumenberg, E. (2002). On the way to work: Welfare participants and barriers to employ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6*(4), 314-325.
Cook, J. A. (2006). Employment barriers for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Update of a report for the President's Commission. *Psychiatric Services, 57*(10), 1391-1405.
Danziger, S., Corcoran, M., Danziger, S., Heflin, C., Kalil, A., Levine, J., ... & Tolman, R. (2000).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Prosperity for all? The economic boom and African Americans,* Russell Sage Foundation,..
Glennie, E. 외 (2024). Breaking barriers to em-ployment: The impact of transitional work on economic self-sufficiency for those facing ob-stacles to work. *Journal of Poverty, 28*(6), 549-570.
Hong, P. Y. P. (2013). Toward a client-centered benchmark for self-sufficiency: Evaluating the 'process' of becoming job ready.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1*(4), 356-378.
Hong, P. Y. P. 외 (2014).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 Measuring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6), 689-706.
Hong, P. Y. P. 외 (2016). Psychological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among low-income jobseekers with physical disability barriers. *Environment and Social Psychology, 1,* 63-73.

Hong, P. Y. P. 외 (2018).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A bottom-up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 *Social Work Research, 42*(1), 22-32.

Hong, P. Y. 외 (2022). Centering on structural and individual employment barriers for human-soci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Issues, 43*(1), 29-55.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Kelloway, E. K. (2014). *Using Mplu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Sage Publications.

Lindsay, S. (2011). Discrimination and other barriers to employment for teens and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3*(15-16), 1340-1350.

McAlpine, D. D., & Warner, L. (2002). *Barriers to employment amo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er for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Care for the Severely Mentally Ill, Institute for Health, Health Care Policy and Aging Research,* Rutgers University.

Noel, V. A. 외 (2017). Barriers to employment for transition-age youth with development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4,* 354-358.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

O'Higgins, N. (2017). *Rising to the youth employment challenge: New evidence on key policy issues.* ILO.

Williams, G. A., & Kibowski, F. (2016). *Latent Class Analysi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In Handbook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community-based research: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25. 8. 21.
심사일자: 2025. 9. 24.
게재확정일자: 2025. 10. 10.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5. Vol. 16, No. 3, 01～16.
https://doi.org/10.22987/jifso.2025.16.3.1

Employment Barriers Perceived by Low-Income Youth: Evidence from a Latent Profile Analysis

Sang Mi Choi
Dongguk University(Seoul)

Sang A Lee
Seoul Welfare Found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ltidimensional employment barriers perceived by low-income youth and offers implications for support strategies aimed at enhancing their self-sufficiency. Using data from the third wave of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panel survey,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on 1,564 individuals with household incomes below 50% of the national median, includ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those classified as near-poor. The analysis revealed three distinct profile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s. The first group, labeled the human capital-vulnerable type (38.61%), reported the lowest overall perception of barriers but emphasized deficits in education, skills, and work experience. The second, the structural barriers-vulnerable type(45.52%),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 facing significant obstacles related to labor market access, job search, and caregiving. The third group, the combined personal and structural barriers-vulnerable type (15.86%), experienced high levels of both structural and personal challenges, including limited control,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physical or mental health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uctural barriers represent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for low-income youth, while a subset faces additional constraints from personal vulnerabilities.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argeted policy interventions that strengthen human capital, enhance labor market opportunities, and alleviate caregiving burdens through structural reforms.

Keywords: Low-income youth, Employment barriers,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barriers, Personal barriers